

The DAC Journal: Development Co-operation - 2004 Report - Efforts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Volume 6 Issue 1

Summary in Korean

DAC 의제: 개발협력 - 2004 년도 보고서 -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노력과 원조정책 - 6 권 제 1 판

국어 개요

DAC 의장 개략

본장에서는 다음의 3 가지 사항을 다루게 된다:

- 맨 먼저, 밀레니엄 개발목표 (MDGs) 달성의 현황에 드러난 차도 정도를 파악하여, 이 방향으로 월등한 차도를 보일 국가 서클을 대폭 확대시키는 데 필요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 둘째, 개발과 안보간의 연관성 구축에 ‘인류 안보’ 개념을 지침 요소로 통합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에 안보 측면을 보다 총체적 맥락으로 반영시키는 방향에 관해 논의한다.
- 셋째, 국제 원조의 규모와 효과성 증대로 인한 진보 여부는 빈민 인구가 보다 안정된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되어진다.

밀레니엄 개발목표

수중의 통계 자료가 드러낸 현실은 섬뜩한 인류 참상의 목록으로 요약된다. 약 11 억명 인구가 1 달러 미만으로 하루를 연명하며, 실용적인 학교교육 습득은 고사하고 초등교육조차 못 받는 어린이 수가 1 억이 넘고, 초등교 입학생의 양성평등 실현원칙은 2005 년에도 준수되지 못할 것이며, 해마다 1 천만명의 5 세 미만 어린이가 사전 예방이 가능했을 원인으로 숨져가고 있다. 게다가, 전세계적 에이즈 확산은 여전한 추세이며, 동시에 말라리아, 결핵 따위의 대체로 소홀해진

여타 질병과 함께 가세하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대다수국이 이뤄 낸 평균수명 증가를 둔화하거나 반전시키고 있다. 나아가, 인구 증가와 소비 증대는 인프라와 천연자원에 계속적인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정 기한까지 이 목표 실현에 어떤 차도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돼지나? 총체적 시점에서 소득 빈곤 목표만이 거의 확실히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그 자체로써 어마한 수확이다. 개도국에서 1 달러 미만으로 하루를 연명하는 인구 비율이 2015 년까지 13%로 감소되어, 절대수로 총 7억 5천만여 명을 낼 것이라고 현재 추정되는데 이는 80년대 초기 최고 수준이었던 15억여 명에 대조되는 바이다. 그러나 나머지 목표 중 전부는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목표별로 기대된 진보 정도가 -물론, 각 목표가 전세계적 차원에서 부단한 진보를 이룩할 것이라고 믿게 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 전세계적 차원에서조차 목표 설정자의 기대 부합에는 취약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취약성은 건강 목표와 관련된 분야에 가장 뚜렷이 드러날 듯하다.

안보, 인권, 개발

안보와 개발간의 연관성, 그리고 이 중요성의 인식 고취로 수반된 실제적 결과, 이 양대 사항에 관해 도출한 종래 합의를 더 강력한 협의로 대치시킬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점은 안보 조직, 개발 조직 서로가 상대방이 탁상에 내놓을 수 있는 통찰 사항을 고려하는 식으로 협동 작업을 개선하여, 개별 목표에 부합한 결과를 초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더욱 더 중요해진 바이다. 이 맥락에서, UN 사무총장에 제출된 인류안보위원회의 2003년도 보고서는 획기적 자료가 된다.

DAC는 2004년 보안체제개혁 관련 보고서를 통해 안보 쟁점에 관한 논의는 정부기관의 전체를 관련시킨 접근방식을 요한다고 강조하였다. 하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개발기관이 (아니면 정치적, 군사적 측면의 기관) 자체내의 목표, 규율, 책임성을 포기하는 결과를 수반치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로, 관련기관당 적용된 개별 권한 및 제약사항의 상호 준수에 정부간 협력체제 구축에 항시 절대 필요한 요소이다.

원조 규모

2002년 3월 개최된 개발자금조달 관련 몬테레이회담은 원조공여면에 새로운 추이의 시대를 열어 주는 듯했다. 1992-1997년 사이 ODA 규모의 실질 가치는 (DAC GNI 대비 비율은 더욱 더) 격심한 축소를 겪었으나, 이후 1997-2001년 사이 DAC 회원국의 원조공여는 DAC GNI 대비 비율로 약 0.22%대에 거의 안정돼지면서 실질 성장세를 회복했지만 성장률은 아주 소폭인 셈이었다. 이후, ODA 규모의 실질가치는 2002년 7% 증가, 이어 2003년 5% 증가되면서, 그 해 ODA 규모를 DAC GNI 대비 0.25% 수준에 이르게 했고, 결국은 이전 최고 수준이었던 1992년도 원조의 실질가치마저 능가케 됐다. 보고 발행은 2004년도 산출액의 발표 이전에 완결됐으나, 금년에도 3년 연속으로 적잖은 실질 성장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게 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 몬테레이 서약 사항은 2006년까지 DAC ODA 규모를 DAC GNI 대비 0.30%대에, 또한 2003년 미달러 가치로 880억여 달러 수준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바이다. 따라서 2001년 이후 50% 가량의 실질 증가를 확보케 될 것이다.

원조 공여

원조집행 방식은 밀레니엄 개발목표 실현에 조만간 기여하게 되면서 원조 효과성의 중요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실로, 원조의 효과성은 강력한 정책 환경하에 더욱 뚜렷이 드러나며, 또한 빈민인의 전세계적 분포를 반영시킨 원조집행은 빈민 인구의 여건 향상에 더욱 효과적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다수 검증 사례에서 이미 지적된 시점이다. 2004년 *개발협력보고서*에 의하면, DAC 공여국은 대개 경우 더 우수한 성과를 낸 국가를 위주로 원조규모 비율을 확장시켰으며 (원조공여의 70% 가량을 성과순위로 40%의 최상위인 수원국에 할애), 나아가 DFID 장기 빈곤 보고서는 공여국별 원조집행 방식이 빈곤 인구의 전세계적 분포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파악케 하는 기준 잣대를 (제 2장에서 논의됨) 새로이 제시했다.

원조 효과성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원조집행의 효과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현행 원조집행 체제는 현격히 개선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될 필요가 있다고 개도국과 원조공여국간에 대대적 공감대 형성된 시점이다. 이어, 대부분의 원조공여기관과 이들이 상대로 하는 원조수령 측의 수원국 정부는 원조 집행 및 수령에 관한 작업에 극도로 애쓰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내에 대거 유입된 원조의 관리 능력이 수시로 결여된 수원국들은, 사절단 파견, 조정 회담, 원조 공여국과의 개인적 혹은 단체적 원조회담 따위 요소에 엄청난 시간을 소요케 된다. 비록 이러한 요소의 일부가 원조공여국 측의 책임성에 대한 부당한 우려를 반영한다고는 하나, 그 어느 사항도 수원국이나, 공여국의 대중적 호응을 받지 못하는 못한다.

수원국에 의한 원조집행

원조 수령액은 1997년의 저수준에서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 실질 가치로 사상 최고 수준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원조를 수령받는 국가의 국민소득이 최근 해에 급증하면서 개도국 전체의 총국민소득 대비 원조수령액 비중은 전혀 변하지 않은 셈이다. 매년 수원국에 유입된 원조 총액의 올바른 예측은 가능하지만, 수원국의 예산배분과정에는 중기 안목의 원조 이행상황에 관한 더 큰 확실성이 보다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소인구 국가는 대인구 국가보다 국민 일인당 원조 규모가 훨씬 더 크지만, 이 때 원조 수령액이 수입품 전체에서 주요 부분을 이룬 경우는 대체로 최미개발국에 한한다. 개도국내 평균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원조공여는 일부 극빈국에 점점 집중돼졌고, 이 때 원조공여는 주로 무상 형태로 이뤄진 반면 기술 협력은 대체로 전무한 상태이다. 각종 자료에서 이미 입증된 바, 질병 퇴치, 식량, 농업, 물 공급 차원의 비용 효과적인 개입을 바탕으로 원조대상 선정 방식의 제고를 도모케 되면, 조만간에 인류 참상 해소와 밀레니엄 개발목표 실현이 가시화될 것이다

2000년 밀레니엄선언 이후 진척 상태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는 개발결과 향상을 전략 삼아 개발 아젠다를 이끌어 가는 중이다. 아시아, 북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가 MDGs 목표 경로에 대거 진입한 상태이다; 서아시아, 카리브해·라틴 아메리카는 교육면에서 다소 차도를 보이고 있지만 빈곤면의 차도는 부진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최미개발국은,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국은 90년대 거의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격렬한 분쟁 방지, 영구 평화 구축은 MDGs 달성에 절대 필요 요소이다. 따라서, 평화와 안보에 관한 DAC 연구작업은 각종 개발기관이 자체내에 이와 같은 밀레니엄선언의 핵심 측면을 반영토록 도움을 주고 있는 입장이다. 한편, 결과를 향한 관심 고조도 - 파트너와의 - DAC 연구작업을 촉진시키면서 원조조화, 국별 전략 및 제도와 원조일치, 예측 가능한 기금조달 형성 등을 바탕으로 한 개발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모범원조관행은 여전히 일반관행으로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

원조 양국간 정책 및 노력

DAC 회원국의 원조공여 규모는 대체로 증가세를 띠는데, 이는 2002년 개발자금융조달 관련 몬테레이회담이 도출한 공약사항을 실제이행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증대된 원조규모의 상당 부분이 국채 경감 형태로 이뤄진 경우였다. DAC 회원국은 개발전략에 관한 수원국 현지인의 주인의식 ownership 고취와 동시에, 원조의 일치와 조화 촉진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여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모색기도 했다. 개발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된 여건하, 더 많은 공여국이 무역, 이민, 투자, 환경을 포괄한 자국내 정책결정의 제반측면에 개도국 이익을 통합하는 절차를 제도로 정립해 내기 위해 잇따른 조치를 취했다. 2004년,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호주, 5개국이 DAC 회원국 검토를 받았다.

© OECD 2005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OECD 저작권 및 원본 출판물의 표제를 언급할 경우
본 개요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개요는 영어와 불어로 각각 발간되었던 OECD 원본 출판물의
발췌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OECD 출판물과 개요는 OECD Online Bookshop
www.oecd.org/bookshop/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ights@oecd.org

Fax: +33 (0)1 45 24 13 91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